

# 대구주보

친교로 하나되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설, 하느님의 말씀 주일  
2023. 01. 22. (가해) 제2358호



마음속에 남은 옛 소화성당

3대리구 소화성당 | 그림 - 서원만 베르나르도

bernard 2023

제 1 독 서 민수 6,22-27

화 답 송 ◎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제 2 독 서 야고 4,13-15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  
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알렐루야.

복 음 루카 12,35-40

영성체송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 성실함으로 하느님 축복의 열매를



교구 사목국 차장 | 석상희 요셉 신부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 주시리라.”(민수 6,24)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설 명절에 어른들은 새해 인사를 드리는 이들에게 덕담을 해줍니다. “새해에도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새해에도 건강하기를...” 또 어른들께도 명절 인사를 드리면서 새로운 한 해에도 건강과 평안함을 빌어드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순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기에 늘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많은 순간 우리는 하느님의 축복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한순간의 요행처럼 생각하고 청하기도 합니다.

땅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축복이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축복인 충분한 햇볕과 알맞은 날씨, 그리고 제때 내리는 비를 간절히 청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축복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간적인 수고를 통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애를 씁니다. 비록 어떤 이유로 원했던 날씨가, 간절했던 비가, 필요했던 햇볕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느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또 다른 뜻을 찾으며 자기 몫의 수고를 묵묵히 해나갑니다.

오늘 제1독서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하느님의 축복을 청하라는 하느님의 명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 주시리라.”(민수 6,24) 새로운 문화와 신앙적인 환경에서도 필요한 하느님의 축복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향한 신뢰를 잊지 않도록 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행복한 종은 이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주인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는 종을 의미합니다.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주인을 기다리며 묵묵히 자신의 책임에 충실한 종, 그렇게 준비된 종은 주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종입니다. 그것은 제2독서의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야고 4,15)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성실히 실행하는 종의 모습입니다.

새해 첫날인 설 명절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인 당신의 축복에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빌어주고 청하는 하느님의 축복은 분명 우리의 성실함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

## 친교를 위한 첫걸음 관심을 가진 바라봄

예수성심시녀회 | 윤 에피파니아 수녀

생태영성 공부를 시작하면서 작은 텃밭을 가꿀 기회가 생겼다. 음식물 쓰레기로 거름을 만들고 비닐 대신 파쇄목으로 고랑을 덮어줄 때만 해도 그저 단순한 밭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막상 씨에서 싹이 나고 그 모종을 밭으로 옮겨 심은 후부터는 마음속의 설렘을 감출 수가 없었다. 아침저녁으로 새싹을 들여다보며, ‘물은 어느 정도로 줘야 하나, 진드기가 생기지는 않을까, 물을 많이 품고 있는 수세미라 달려드는 개미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수많은 질문과 설렘을 가지고 다녔지만, 서툰 내가 수세미 나무와 통교하기는 참 어렵기만 했다. 베테랑 언니 수녀님들은 수세미는 씨만 뿌려두면 알아서 잘 크니 내버려 두라 하셨지만, 농사일에 초보인 나는 하루하루 자라는 수세미가 그저 신기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가득했다. 얼마쯤 지났을 때 스스로 꽃을 피우고, 어느 날엔 밤새 훌쩍 커버린 열매들을 보며 수세미들이 대견하게 느껴졌다. 이젠 ‘앵~’ 하고 밭을 날아다니는 벌을 보면 반갑고, 하느님이 뿌려주신 비 한 번에 싱싱하게 힘이 들어가 있는 잎과 줄기들을 마주하게 되며 날마다 감탄사와 찬미가를 올렸다.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만 수세미와 친해지며 나는 창조주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다.

작은 농사를 지으면서 눈에 띄게 변한 모습은 수세미를 향한 관심이었다. 수꽃, 암꽃, 수정... 이런 단어들은 시험공부 때 외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자발적으로 찾아보고 공부하니 머리에 쑥쑥 남아 있고, 관심을 기울여 바라보니 열매 하나하나가 모두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씨앗 하나를 심었고 꽃 피고 열매 맺는 과정에 겨우 손을 조금 보탤 뿐인데, 매일 들여다보며 인사 나누고, 잘 크는지 살펴보는 내 모습 속에서, 나를 창조하시고 농부의 마음으로 매 순간 지켜보고 계시는 하느님을 발견하게 되었다. ‘임마누엘 하느님’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깨닫게 되는 큰 선물을 받은 것이다. 고통 중에 있을 때, 멀리 계시고 침묵하고 계신 하느님으로만 느껴지는 순간조차도 늘 그렇게 내 옆에서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걸 말이다.

원 소임과 더불어 간단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초보 농부인 나는 선배 수녀님들께 물어볼 것이 참 많았다. 평소라면 식사 시간 외에 이야기 나눌 기회도 없었을 텐데, 이제는 오가시는 산책길에 내 밭에도 들러 풍성히 열매 맺은 수세미를 보시라 권하기도 하고, 하루의 소소한 체험을 신나게 나누며 나 자신이 수세미 덕에 공동체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체험도 하게 되었다.

농부이신 아버지 하느님의 창조 활동은 오늘도 계속되고 그 덕분에 나는 영육으로 넉넉함을 선물로 받았다. 분주한 삶의 속도를 잠시 멈추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피조물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며 찬미가를 올리는 것이 내 몫인 것 같다. **필문**



## 하늘이 맺어준 인연

계산성당 | 이영숙 만나

“대부님, 축일 축하드립니다.” 연이어 단톡방의 알림 소리가 요란하다. 그들의 대부님인 남편의 축일이다. 회원 8명의 축일이 다 달라서 각자의 축일에는 예외 없이 축하 문자가 오고 간다. 우리는 4쌍의 부부 모임이다.

우리 부부가 그들의 대부, 대모이며 나머지 3쌍은 우리의 대자, 대녀들인데 부부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창 왕성하게 교회에 봉사하던 시절에는 세례식 때 대부, 대모를 서야 하는 일이 많았다. 내가 한 자매의 대모가 되어주면 그 대녀가 신랑을 인도하여 세례를 받을 때 남편이 대부가 되어주었다.

세례식 후 바로 레지오에 입단시키고 함께 활동하면서 신앙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었다. 그러다 뜻하지 않게 우리가 전출하게 되었다. 한 본당에 있으면 늘 만나기 때문에 따로 모임이 크게 필요치 않았지만 물리적 거리로 인해 자주 못 보다 보면 서로 소홀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고자 제안했다. 서운한 마음들이 앞서 있다가 모두 반기며 좋아하였다. 이러한 계기로 결성된 모임이 어느덧 오늘까지 십 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일 년에 한두 번은 성지순례를 겸한 야외 행사도 가고, 함께 만나 식사도 하면서 그간의 근황들을 나누다 보니 이제 친동기간 이상의 애정이 생겼다. 호형호제하면서 근심이 있으면 단톡방에 올려 기도도 청하고, 집안의 경조사에도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는 한 가족이나 다름이 없다.

지난 연말에 팔공산 인근에서 식사 모임을 가졌는데, 영하의 추위에 주님은 우리를 한티성지로 불러주셨다. 인적 없는 눈 덮인 성지의 야외 십자가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 화이팅을 외치며 손뼉을 쳤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아마도 하느님 보시기에도 참 좋으셨을 것 같다.

이젠 대부모인 우리는 일선에서 잠시 물러났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 본당 사목회, 꾸리아, 복사단, 자모회 등에서 각자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 사이 3개 본당으로 나누어져, 서로 만나면 각 본당의 소식도 듣게 된다. 봉사하면서 겪는 고충도 이야기하고 삶의 이야기도 스스럼 없이 나누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주님 안에서 친교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

우리가 모두 그 자체로 축복이며, 우리는 영원히 함께 가야 할 주님이 맺어주신 귀하다귀한 인연이다. 새해에도 우리 더 많이 사랑하며 삽시다.

※ 본 내용은 2023년 대구주보 『친교를 이루는 사람들』 원고 공모 당선작입니다. 

드망즈 주교의 일기  
1913년

## 복음을 위한 열정의 항해

### 8월 1일 금요일

나는 대구를 떠나 이곳 부산에 왔는데, 오늘 저녁에 떠나는 배를 타고 내일 목포에 도착해 샤르즈뵈프 신부가 지을 초석을 일요일에 강복하게 되어 있었다. 그 배가 내일 아침에야 출발한다고 하여 나는 줄리앙 신부의 집에서 잤다.

### 8월 2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배에 올랐다. 오늘 아침에 나는 정해진 시간에 배를 타러 갔었다. 배가 저녁 7시 30분에야 출발할 것이라고 하여 본당으로 돌아갔다. 6시 30분에 다시 배를 타러 갔는데, 나를 데려다준 삼판이 굉장히 심한 바람 때문에 배에 접근하기가 힘들었다. 한 시간 전에 출발했어야 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나는 공동실에서 돛자리를 깔고 앉아 있다. 일본인들로 가득 차 있다.

### 8월 3일 일요일

밤새, 그리고 현재 낮 동안에도 배는 앞뒤로, 좌우로 몹시 흔들리고 있다. 무언가에 매달리지 않고 방 안에 서있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내가 줄리앙 신부에게서 재미있는 책을 한 권을 빌려 오길 잘했다. 나는 파이프에 담배를 다져 넣거나, 일본 쌀밥을 먹거나, 바람과 비와 파도로 찢긴 갑판 위로 불가피하게 나가야 할 때 이외에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돛자리 위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내 복사인 야고버는 옆방에서 이불을 감고 아파 누워 있다. 일본인 남녀들은 대부분 뱃멀미를 하고 있다. 미사를 드리지 못하고 지내는 일요일이다. 15년 전, 이와 비슷한 날에 젊은 선교사들 22명의 출발이 뒤 뒤 뱃(rue du Bac 파리의방전교회 본부와 신학교가 있는 파리의 거리)에서 있었는데, 나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내가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동안 남아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많은 이들이 이미 이 세상을 하직했다. 끊임없이 물에 젖어 있는 선창을 통해 한줄기 빛만이 들어오는 오늘 하루 긴 시간 동안에 나는 이 모든 이들을 생각하며, 상상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다시 보았다. 과거에 대한 회상은 길고도, 결실이 풍부한 묵상 재료를 제공해 주었다.

출처 : 가톨릭신문사 창간 60주년 기념자료집 『드망즈 주교 일기』(1987)



가정의 복음화를 꿈꾸는

## 가톨릭 금빛신문은

매월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을 찾아 갑니다.

본당 주보대 및 교구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가톨릭 금빛신문에서는 독자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곳 : dgsalesio@naver.com

-주제 및 분량 : - 가족과 관련된 추억의 사진과 설명글(300자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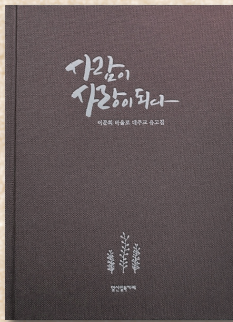
- 어른신들의 신앙생활(500자 내외)

※보내실 때 성함 및 연락처 필수 기입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053)250-3077·3114



크리스천 Y.M. & C.A.M



## 사랑이 사랑이 되다

이문희 지음 | 200면 |  
12,000원 | 앞산밑북카페

## 故 이문희 바울로 대주교 유고집 판매

대구대교구 제8대 교구장이셨던故 이문희 바울로 대주교님의 생전에 많은 사랑을 받은 시와 미발표작, 일기와 강론, 에세이 등을 묶은 유고집을 판매합니다.

구입문의 : 교구 문화홍보국, 053)250-3048~9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탄소발자국 줄이기

## 과소비 지수 ((월평균수입 - 월평균저축)/월평균 수입) 계산해서 실천해 보기

• 1 이상 : 심각한 과소비 • 0.7~0.9 : 과소비 • 0.6 : 적정소비 • 0.5 : 알뜰소비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 농어민사목부 제공

서로 미워하지 말고

박성규 엘리지오



⑥ 설, 하나님의 말씀 주일

## 미사 안내

|                |                        |                  |                        |
|----------------|------------------------|------------------|------------------------|
|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1월 25일(수) 10:00 죽도성당   |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 1월 28일(토) 11:00 월성성당   |
|                | 1월 25일(수) 14:00 성토마스성당 | 한티순교자 현양후원회 월례미사 | 1월 28일(토) 11:00 한티피정의집 |

### 수도회 성소 | 피정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젊은 여성 모임

일시: 1.28(토) 14:00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관(진천동)

대상: 만 39세 이하 가톨릭 미혼여성

문의: 강피아 수녀, (010)3679-7198

### 시설 | 기관 | 단체 알림

고령성가의집(양로원) 조리원 모집

위치: 경북 고령군 쌍림면 월막길 108

대상: 만 60세 미만(기숙사 제공)

접수: 1.31(화)까지

문의: (054)954-1824

성모애덕의집(양로원) 입소어르신 모집

위치: 경북 칠곡군 동명면 남원로 487

내용: 1인 1실, 미사, 수녀원 운영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문의: (054)972-6219 / (010)2353-6219

바오로딸 영성프로그램

행복한 영화읽기 2.1~ (수 10주 14:00)

내영혼의 글쓰기 2.17~ (금 8주 10:30)

마음을 전하는 책방우체국 2.22~

(매주 수 10:30)

신청 및 문의: (010)6681-5185

무료병원 성심복지의원 후원 모집

어려운 이웃들의 무료진료에 필요한

나눔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계좌: 대구은행 069-10-003259

기부금영수증 문의: 256-9494

홈페이지: <http://sungsim94.or.kr>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칠곡가톨릭병원 전문의 초빙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에서  
전문의를 초빙합니다.

초빙과목: 내과

문의: 320-2120 / (010)7372-0076

전인병원 건강보험검진

위·대장내시경 검사에서 결과까지

당일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670-5959

천주성삼병원 보험공단검진

가족행복의 시작은 국가건강검진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신매동)

일반검진, 5대 암검진

문의: 790-0660 (8:30~17:30)

### 교구 외 | 기타 알림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입학 안내

기간: 1.4(수)~2.6(월)

주최: 사랑의씨든수녀회 운영 학교법인

대상: 상호문화교육희망자, 이주배경

청소년 / 전형 일정 학교 홈페이지 참조

문의: (061)432-9241

2023 신년 은사 치유세미나

일시: 1.27~4.14 매주 금 21:30~03:00

장소: 청주교구 초정성령회관

버스: 조치원역신한은행앞 20:00,

청주고속터미널앞(다이소건너) 20:20

문의: (010)4400-1344 / (043)213-9103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10주년 이벤트

내용: 설립 10주년 할인 이벤트

수강료: 일반 25,000원 / 단과 10,000원

문의: (031)360-7635 / (010)7470-7966

30대를 위한 신약통독(zoom)

일시: 3~11월(일) 16~18시 (3개월 12만)

지도: 프란치스코회, (010)4598-6912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성요셉요양병원**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병원장 김명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Since 1963

**가톨릭피부과의원**

60년 역사와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습진 / 무좀 / 아토피 / 건선 / 탈모 / 레이저 시술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15길 28

☎ 053) 320-2000

**대구연세안과**

백내장 / 노안 / 라식 / 녹내장 / 망막질환

대표원장 박중원 (소시모)

(현 연세대 외래교수)

안과전문서재신(베드로) · 장주현(비비안나)

수성구보건소 맞은편 대동M타워 4~6층

☎ 053) 626-8881~5

개원 2주 기념

**척추·관절 및 뇌·신경 클리닉**

**백 신경외과 의원**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손발저림, 진전, 요통  
좌골신경통, 목·허리 디스크,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오십견, 근·골격계 질환

원장 백운일(스테파노), 서영준(안드레아)

성당시장대거리 ☎ 053)628-4111

**파크골프**

국산세 20~30% 할인·혼마·수입세 초보자 무료레슨

**전기 온수 매트 소형  
소금 열 좌욕기 가전**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010-9804-8008

유통단지로 45 전차관 1층 239호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연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http://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재활정형  
전인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입구 1688-7667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이재희(베네딕도) 신부  
2011년 1월 23일
- 김현수(바오로) 신부  
2000년 1월 24일
- 엄택기(에밀레오) 신부  
1952년 1월 27일

## 교구 | 대리구 알림

### 교구청 관리과 사무직원 채용

자격: 30세 이하(남,여 구분 없음)

서류: 홈페이지 참조

마감: 1.30(월)까지

제출: 교구청 본관 관리과, 250-3031

### 2월 임신부 축복 미사

일시: 2.10(금) 10:00~12: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대상: 신자 임신부(신청필수)

진행: 축복미사 및 모임

신청: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 군위묘원 2차관리비 납부 안내

2013.12.31. 이전에 장례하신 묘주께서는

미납된 관리비를 확인하여 납부바랍니다.

문의: 교구 관리과, 250-3003

### 군위묘원 30년 사용만기 분묘처리 안내

군위묘원 매장묘지의 사용기간은 매장  
일자로부터 30년입니다. 1994년 이전에  
장례를 하신 묘주께서는 교구청 관리과  
로 만기분묘 처리 접수 부탁드립니다.

(계약 연장 또는 분묘 이장신청 택1)

문의: 교구 관리과, 250-3003

## 시설 | 기관 | 단체 알림

### 가톨릭পুর터

#### 학생미혼모 대안교육 강사 모집

분야: 국어, 수학, 사회, 한국사 등

조건: 교원자격증 소지자

내용: 학기 중 과목별 주1회 수업

문의: 764-8537

###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2.21 베트남 성모발현지 5일 139만원

3.4 발칸반도(메주교례) 12일 395만원

3.8 이스라엘 9일 445만원

3.13 이집트, 이스라엘 12일 469만원

문의: 428-5004 / www.cttour.org

### 바뇌의 성모기도회 월례미사

바뇌발현 90주년 기념미사

일시: 1.26(목) 9:30~16:00

장소: 꾸르실료 교육관

강사: 손무진 사도요한 신부

미사: 조환길(타태오) 대주교 집전

### 제대꽃꽂이 봉사자를 위한

#### 전례꽃꽂이 아카데미 신입생 모집

문의: 전례꽃꽂이연구회, (010)2509-9748

### 마리아사제운동 1월 미사

일시: 1.28(토) 10:00 삼덕성당

목적: 1)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께 봉헌

2)교황과 교회의 교도권에 순명, 일치

3)신자들을 봉헌생활으로 안내

문의: (010)9366-9170 / 공용주차장 이용

### 토마스 머튼 영성 배우기

일시: 3.18(토) 15:00~19(일) 14:00

(4, 6, 7, 9, 11월 모든 회차 수강 가능)

입문반 수료증 수여

문의: 왜관 피정의집, (010)6791-0071

### C.P.E.(임상사목교육) 교육생 모집

일시: 2월 중순~6월 초(16주간)

목,토요일(선택) 10:00~17:30 / 80만원

화,금요일(선택) 9:30~13:00 / 40만원

대상: 자신·타인 돌봄에 관심 있는 분

문의: 성바오로CPE센터, (010)4996-5508

### 2023년 겨자씨성서 신입생 모집

개강: 3.2(목)

구약반: (목) 10:00, (목) 20:00

신약반: (금) 10:00, (화) 20:00

심화반: (월) 10:00, (수) 20:00

문의: (010)4106-4627 / (010)7520-4627

**장 윤 제  
연 합 치 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역임  
원 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DAEGU CATHOLIC CHILGOK CATHOLIC HOSPITAL

내과/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산부인과/가정의학과/이비인후과/치과

**건강검진센터 | 응급실24시운영**  
대구 복음 병원 병원가인

진료 예약 및 문의 | ☎ 053) 320-2500

**DO KIM 도안김연내과**  
DO KIM DO AN KIM

**혈액투석 주·야간투석  
공단검진 위대장내시경**

원장 도원석(베드로) 김아림(안나)  
대구 서구 팔달로 152 4층 지하주차장상반비  
3호선 팔달시장역, 팔달신시장 맞은편

외래검진 053)357-7400 신장실 053)357-7500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신경정신과전문의/의학박사 대한수면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공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

**WIDEX 달서점  
와이덱스 보청기**

前) 대구복음보청기 14년 지점장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즉석 A/S, 청능사/사회복지사  
류(다니엘) **053)554-0044**

2호선 감삼역(서남시장) 2번 출구 앞

**월간 빛 정기구독**

교구에서 발행하는 종합월간지 빛 정기구독을 통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나보세요!

▶ 본당 구독: 정가 1,500원, 1년 구독료 18,000원  
▶ 우편 구독: 정가 1,800원, 1년 구독료 21,600원 (우편료 300원 포함)  
▶ 구독 문의: **053)250-3158, 252-5392**